

복현1동 사람들의 소중한 소식함

들샘 근로 소식지

여는
그림

겨울 내내 호박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장독대에는 간장, 된장 등 오만개 다 들어있었지.
펌프는 도랑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농작물들이 잘 자랐어.

그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은 밍키였는데
그 이유는 밍크코트가 귀해서야.

- 복현 그림마당 주민참여자 장복희

들샘소식지 순서 CONTENTS

- 01 복현 그림마당
- 02 2021 주민제안 공모사업
- 04 복현1동 현장을 가다
- 06 복현1동 명물 / 명소
- 08 복현1동은 지금
- 10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식
- 12 복현1동을 기록하다

2021 복현1동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기념사진 ▶



복현1동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장화선 기자

복현1동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실천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이 사업에는 3개 팀, 33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가한 3개 팀은 지난 활동을 복현1동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함께 나누고자 '나눌수록 커지는 공동체'를 주제로 성과공유회(14일)를 마련했다. 『엄마밥집』은 반찬 35인분 세트, 『깨나라이야기』는 참기름 35병, 『장미』는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쪽파 35단으로 일명 '건강

먹거리 꾸러미'를 만들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35곳에 전달했다.

복현1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인 주거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엄마밥집』은 주민과 청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마을식당을 계획하고 있다. 『깨나라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 참기름을 제조·판매하여 일자리 창출과 이웃돕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장미』는 도시텃밭과 마을정원 가꾸기를 통해 마을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주민 공모사업의 특징은 복현1동 마을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 모델 컨설팅 및 실습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주민 스스로 팀을 꾸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보고·정산까지 직접 수행하였으며, 결과물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래는 각 팀별 활동에 대한 기사이다.

복현1동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깨나라 이야기』팀

하경진 기자

주민협의체 회원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한 『깨나라 이야기』는 우선 과제로 참기름 제조 실습장을 조사했다. 활동 사업장으로 최종 후보 5개 업체를 두고 논의한 끝에 복현1동에 인접해 있는 '민속참기름'(동구 신암동)을 최종 선정하였다.

"7월 1일~8월 19일까지 참기름 가공실습과 시음회 행사를 각 세 번씩 했고, 8월 20일부터 8일 동안 사업경영과 운영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시행해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참기름제조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팀원들은 '하면 된다'는 각오로 첫 실습과 시음행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깨나라 이야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두리 씨의 말이다.

좋은 참기름은 최상의 재료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으로 좋은 깨만 선별해 짜낸 『깨나라 이야기』의 참기름은 시음회에서 고소한 냄새와 적당한 볶기로 질 좋은 제품이라는 주민들의 호평을 얻어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팀원들은 볶음 온도 조절과 압착 착유기의 참기름 추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습을 막힘없이 소화해냈으며 이어진 두 번의 시음행사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며 무사히 실습체험을 마치게 되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 기간 중 후반에 이루어진 희망 컨설팅을 통해 운영 방법과 기자재 및 원재료 구입방법, 부수자재 구매요령 등을 배울 수 있었다. 2개월에 걸친 실습과 강의로 많은 것을 습득한 『깨나라 이야기』는 사업기

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기름을 맛있게 만들고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은운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복현1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표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되고 있다.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참기름 제조교육 및 컨설팅 진행모습



▲ 참기름 추출 및 시식회 진행모습

청년, 주민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전달하는

『엄마밥집』팀

김슬임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팀장

마을인근 경북대 학생들과 독거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전달하기 위해 모인 『엄마밥집』은 7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전한 먹거리 교육 및 요리 강습 프로그램 등 엄마밥집을 창업하기 위해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했다.

11명의 복현1동 엄마들이 모여 곰네들 협동조합과 농부장터를 찾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교육을 받았고, 청년들의 입맛을 공략할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답사하고 요리 강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식회를 열었다. 닭가슴살 샐러드를 개발해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지, 보완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엄마밥집』 대표 장복희 씨는 “마을인근 원룸 거주 청년들과 피란민촌 주민들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 같은 간편식을 먹는데, 이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심각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마을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 손맛이 가득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였는데, 이 기회로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복현1동 거점시설인 복잡소에 조성될 (가칭)『엄마밥집』 창업을 위해 음식창업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이 컨설팅을 통해 마을에 주고자 하는 가치와 운영 노하우, 수익구조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엄마밥집』의 실무자 우영희 씨는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해 실행에 제한도 많았고,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지만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엄마밥집』은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현장답사와 회의를 진행하며 청년과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요리 강습 프로그램 진행 후 기념사진

복현1동 마을 공터를 텃밭으로 변화시킨

『장미』팀

김기숙·정정순 기자

깨끗한 마을 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모인 『장미』팀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지 내 공터에 ‘텃밭과 화단’을 조성했다.

한여름에 제초기와 낫으로 잡초를 사할 동안 뽑고 화단과 텃밭 공간을 만드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장미』팀의 열의와 노력으로 공터는 꽃과 작물들이 자라는 텃밭과 화단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다.

『장미』팀 배재근 대표는 “마을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이 화합하고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벽화 그리기를 통해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장미』팀의 텃밭과 화단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공터를 의미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해 낸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의 좋은 성과였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들의 구상이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치미술가 이승희 작가를 초빙하여 주민들과 함께 벽화를 그려 마을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최서현 팀장은 “주민들이 땀흘려 손수 가꾼 마을 텃밭이 주민의 쉼터가 되고 더 나아가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 01. 텃밭과 화단 조성 전 공터 모습
- 02. 공터의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
- 03. 화단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모습
- 04. 조성된 텃밭과 화단에 꽃과 열무를 식재한 모습
- 05. 장미텃밭 벽화 조성 후 기념사진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

우리 동네 환경 정화는 우리가 책임진다

도창중 기자

아침 9시경 바쁜 출근길에 종종 우리 복현 1동 지역 환경 지킴이 노인들을 만날 수 있다. 녹색 조끼에 모자를 눌러쓴 여러 명의 남녀 노인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골목골목 다니며, 부지런히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노인들은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6명의 노인들이 우리 복현1동 지역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활동했다.

복현1동은 환경정화 관리 구역이 넓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만큼 깨끗한 동네 만들기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체계적으로 동네를 관리하고 깨끗한 동네로 거듭나기 위해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공형 일자리를 시행하고 있다.

황순자(83) 씨는 3년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일찍 출근해 폐지도 줍고, 빈 플라스틱병, 담배꽂초 같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온종일 집에 있다 보니 무료하기도 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몸도 좋아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 마음도 편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서 좋고요." 마찬가지로 3년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여늬(80) 씨는 "아직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벌 수 있어 좋습니다"라며 밝은 모습으로 말한다.

윤정치(76) 씨는 노인 일자리 활동에 대해 "집에만 있기 심심한데 이렇게 동네에 나와서 한 바퀴 돌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동도 하니 일석이조"라며 일상의 무료함도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감을 전한다.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 임예숙 맞춤형 복지팀장은 "아직은 일하고 싶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지원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다. 청년과 중장년층 역시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의 대표적인 이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의 노인 계층을 위해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취약 노인층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가 양대 목표라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취약 계층 노인들에게 소득 보전과 더불어 건강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다. 남녀 구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공공근로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수령확인서가 필요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를 받거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등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신청할 수 없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매년 12월경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은 1일 3시간, 월 10회 총 30시간 일을 하고 활동비를 받게 된다.

* 문의 053-665-3312, 3634

복현1동 개런리

정정순 기자



집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석류나무 한 그루. 이번 가을, 유달리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사 올 때 아파트 공용화단에 직접 심었던 게 벌써 20년이 지났다. 심은 지 3년 만에 조금씩 열매를 맺더니 지금은 50개는 족히 넘게 열린다. 열 세대가 사는 아파트라 열매가 열리면 오며가며 따먹고는 한다. 새콤달콤 눈이 저절로 윈크를 하게 되는 맛! 가끔씩 깻묵 같은 거름을 묻어두는 것 외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잘 자란다. 창문에 걸리면 한 폭의 그림이 되고, 나무 가까이 서면 마음이 절로 풍요로워지는 석류나무! 그 자리에 그렇게 서서 내 인생과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다.

복현1동 삼행시

김기숙 기자

복 : 복 들어와요

현 : 현실에 맞춰 사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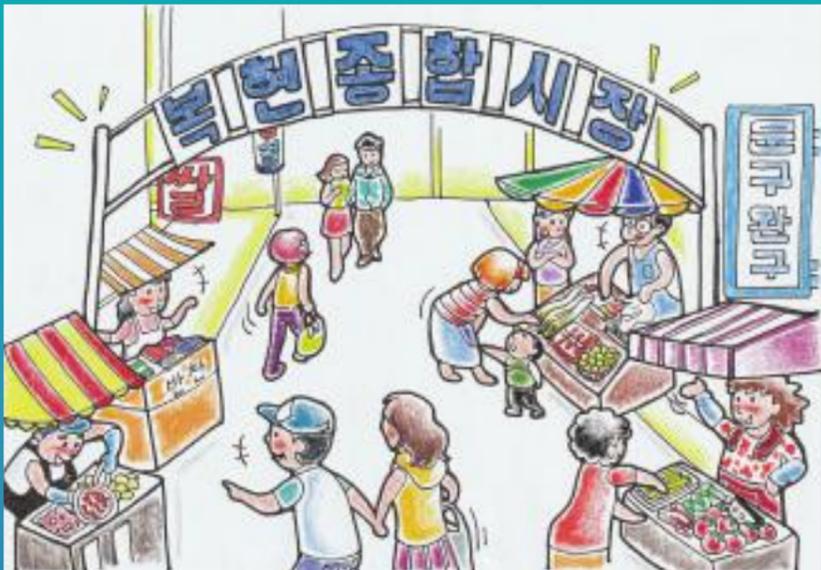
동 : 동네가 온통 환하게

도시재생으로 기지개를 켜네요

저는 삼십대 중반에 복현1동으로 이주해 70대 초반인 지금까지 제2의 고향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복현1동은 도시재생이라는 커다란 기지개를 고 있습니다. 복현1동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앞으로도 함께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복이 다행히 들어오는 행복을 안겨주었던 복현1동! 앞으로도 사랑하는 이웃 주민들과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며 함께 협심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들샘만평

그림. 여을



사라져가는 복현종합시장 대안은 없나

백명숙 · 이종철 기자



▲ 일층에 위치한 일부 점포들만 영업을 지속할 뿐 과거 시장상가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복현종합시장의 현재 모습

대구 북구 경진로1길 78에 위치해 있으며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와 복현지구대 등 주요시설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 복현종합시장은 복현1동을 대표하는 종합시장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영화로운 모습은 2021년 현재,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다. 북구청을 관할관청으로 하여 '복현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2006년에 설립되었지만 조합원 간의 분쟁으로 인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 진척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한 차례, 고도제한에 맞추어 17층으로 재건축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조합원의 반대와 매도 청구 소송 등의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원래 상가가 있던 자리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주차장이 생기는 등 상권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21년 10월에는 수도배관 파열과 전기 누전 등으로, 건물이 노후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복현종합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했으며 현재 재건축조합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우 씨는 "조합원들은 강구책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병행하든지, 조합 해산 후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보수작업을 진행하기 희망하고 있다.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관여가 있어야 사라져가는 복현종합시장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 복잡소 건축을 위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안전판을 설치해 놓은 내부 모습

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모두 계획대로 철거하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뜻밖의 난항에 봉착했다. 어울림센터는 주거환경개선 지역 내의 일부 주민들과 도시공사가 보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차질을 빚게 되어 예정된 계획과 기일 면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올해 5월 열린 북구청,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협의체 실무단이 함께한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2022년 12월로 준공기한 연장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을 인정받은 것이다.

주민협의체에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박차를 가하다

하경진 기자

2018년 10월 이후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년여가 지난 지금 가시적인 성과의 수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복현1동 경대로19길 55-13, 15, 17)을 활용해 복잡소(福job소)와 어울림센터를 조성해 주민 복지를 증진토록 할 계획이다. 2020년 6월 토지매입을 완료한 해당 부지 중 일부(약 830m²)는 복잡소와 한옥카페, 소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2월에 매입한 일부(약206m²) 부지는 어울림마당(만남의 장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며 두 부지 모두 2022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철거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두 부지에 자리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주민과 북구청 담당부서의 협상이 시작될 2020년 1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진행이 일시 중단되었고 주민협의체 회원들의 활동도 유보되었다. 2021년 현재, 기존에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였고 어울림마당 필지 내의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안전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복잡소와 한옥카페의 설계 도면을 의뢰한 상태다. 복잡소 예정부지의 경우 한옥건물

북현1동 명물&명소

북현오거리 먹자골목

경북대학교에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골목이 먹자골목으로 이름을 바꾸었지 않나? 다양한 먹거리 가게들이 성수님이 뜰 때도 있었지만 뭐니뭐니해도 북현1동의 명물 골목이라 생각한다.



들샘경로당 (대구 북구 경진로4길 25-1)

원룸 건물들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햇볕이 따스하고 바람도 잘 통하는 들샘경로당. 좁다란 입구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넓은 부지에 놀라게 된다. 소소한 텃밭과 단층의 건물이 왠지 모를 편안함을 주기도 한다. 할머니 몇 분이 담소하시다가 “마당에 있는 채소에 거름되라고 커피를 주었더니 너무 취해서 죽어버렸다”고 말씀을 건네주신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마당 텃밭과 웅기종기 모여 있는 향아리가 인상적인 들샘경로당이다. - 신예숙 기자



북현1동 주민제안 공모사업팀 (공동체)

『장미』의 정성스레 기른 쪽파, 『깨나라 이야기』의 고소한 참기름, 『엄마밥집』의 맛갈스런 멸치조림, 장조림. 세 팀이 힘을 합쳐 북현1동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키우고 만든 물품들을 전달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것을 생각하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 봉사로 더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주민제안공모사업팀이 자랑스럽다. - 장화선 기자



북현1동 피란민촌 골목

예쁜 색으로 꾸며진 골목길이 아기자기하게 예쁘다. 이리저리 뽀여있는 호박농쿨도 고향에 온 듯 정겹게 느껴진다. 도심에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도시재생사업을 곧 사라질 골목이라 더 아쉽고 애뜻하게 느껴진다. - 이종철 기자



북현경로당 (대구 북구 경대로 23길 25-5)

북현경로당은 북현1동 경로당 세 곳(북현·동진·들샘) 중 한 곳이다. 북현1동 주민 중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이 경로당은 비슷한 연배의 노인 친구들과 만나고, 바둑을 두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등, 취미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여가와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북현1동이라는 일상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 김은정 기자





...막창으로 유명했던
...다. 지금은 막창뿐만
...업 중이다. 코로나로
...워니해도 명실상부한
... - 정정순 기자



장미공원

새벽 6시 30분 운동하러 들르는 장미공원. 운동기구를 순서대로 활용하고 공원을 열 바퀴쯤 돌고나면 아침 밥맛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 코로나19라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은 분들께 이른 아침 장미공원 산책을 추천한다. - 김기숙 기자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 장미공원! 사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오는 이에게 마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이른 아침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공원에 생기를 더한다. 점심시간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정자에 모여서 윗놀이와 이야기 꽃을 피운다. 한 번 들르면 해질녘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다. - 배재근 기자



경진초등학교 (대구 북구 경진로12길 5)

1983년 12월 8일 대구 경진초등학교로 설립·인가 되었으며, 1984년 3월 1일 15학급으로 개교한 공립학교이다. 교훈은 '예절바른 어린이, 슬기로운 어린이'이며, 교목은 느티나무, 교화는 장미이다. 경진초등학교는 지난 2018~19년도 예술교육 유공학교 선정(교육부장관상), 학교 체육 활성화 표창(교육부장관), 제20회 아름다운 교육상 최우수(교육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국소체 평가대회 씨름 장사급 1위, 학교폭력예방 교육감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두드림 학교 운영, 학생주도수업 선도학교 운영, 1인 악기 예술가 운영 등 학생들의 기초능력 향상에 노력하며,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2014년도 2월에는 오케스트라 합주실을 완공하고 어울림 놀이시간을 통해 전 학년이 1인 1악기를 준비해 '어울림 작은 음악회'등 오케스트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 도창종 기자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는 산격동(현 대학로 80)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북현1동의 일부가 대학 내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북현1동과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북현1동 주민들도 경북대학교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캠퍼스를 산책하거나 운동 코스로 즐겨 활용하고 있다. - 백명숙 기자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만든다

신예숙 기자

북현타작 사진아카데미Ⅱ 프로그램 체험기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만든다’라는 주제로 북현타작 사진아카데미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피란민촌 주민들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기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열린 이번 북현타작 사진아카데미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6주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었다. 북현1동 피란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마을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라질 동네 모습을 사진과 글로 남기는 작업이었다. 타인의 삶을 기록하고 작품으로 남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진 아카데미인 만큼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룡샷, 클로즈업 샷, 하이 앵글 샷 등 다양한 사진기술을 배웠다. 수업 후, 골목골목을 다니며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주민들의 사진을 찍었다. 시간을 달리해서 찍거나 같은 장소에서 흐린 날과 맑은 날,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구도와 앵글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더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다.

아카데미 후반부에서는 아동문학 작가님의 특강이 있었다. 강의를 통해 시가 삶의 이야기를 운율에 맞게 함축된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임을 배울 수 있었다. 사진에 접목해서 포토에세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다. 사진을 찍고 그 사진 밑에 한 문장의 시를 쓰는 디카시는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다. 도합 여섯 번의 수업이 끝나니 어느새 동네 분들과 골목에 정이 들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마을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을 조명하고,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었다.

까치풍물단

장화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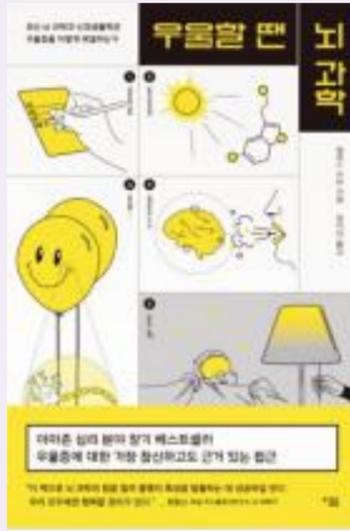
지난 2020년 10월,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 마을동아리 사업에 까치풍물단이 선정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몸과 마음이 밝

아지는 계기가 된 취미활동이었다. 장구를 사용하니 양 팔과 양 손 사용으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서서 어깨에 둘러매고 치다 보니 다리 운동도 되고 흥도 난다. 그 옛날, 선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흥을 돋우기 위해 시작했다는 풍물놀이. 이제는 구경하기조차 어려운 전통놀이를 배우니 몸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다. 뿔과리, 날라리, 소고, 북, 장구, 징이 한데 어우러지면 신명나는 놀이 한 판이 벌어진다. 동아리 지원사업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모임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모두 풍물단원들의 열의와 꾸준한 활동 덕분이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마을을 대표하는 동아리 모임으로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단원으로써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까치풍물단 상시 모집 문의 053-939-3550

코로나 스트레스 극복하기

김은정 기자



이제는 너무 지겹고 힘드시죠? 언제 끝날까 싶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아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영어단어 ‘블루(Blue)’에 ‘우울한’이라는 뜻이 숨어 있는데, 여기 코로나가 더해져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종 우울증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지만, 가벼운 우울감의 경우에는 몇 가지 생각법이나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진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뇌과학 박사이자 우울증 전문가인 알렉스 코브(Alex Korb)가 저서 「우울할 땐 뇌과학」에서 추천하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최선이 아닌,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라

우울감에 빠진 뇌는 마치 모든 일이 나의 통제 밖에 있는 듯한 ‘자기통제감 상실’ 상태가 되기 쉬운데, 우울증 환자들이 원인모를 무력감에 시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울함의 늪에 빠졌을 땐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골몰하는 것보다 그럭저럭이라도 괜찮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하라

불면증과 우울증의 관계는 생각보다 밀접하다. 불면증이 있으면 우울증을 얻을 가능성이 크고 우울증이 있으면 불면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질 좋은 수면을 취했을 때 우리가 얻는 건강상의 이익은 스트레스 감소, 학습력과 기억력 상승, 뇌 안의 화학적 노폐물 청소 등 수없이 많다.

세 번째,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뇌의 도파민 회로의 활동이 개선되고 세로토닌이 증진되어 우울감에 맞설 수 있다.

네 번째, 꾸준히 운동하라

꾸준한 운동은 우울감이 야기할 수 있는 증상 중 많은 것을 해소시키거나 감소시켜 준다. 운동을 하면 무기력한 신체에 활력이 생기고 불안과 스트레스 수치는 급감하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운동을 한 후에는 우리 몸 안의 ‘노르에피네프린’이란 물질이 충전되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은 항우울제가 세로토닌 다음으로 가장 많이 타깃으로 삼는 신경전달물질이다. 경증 수준의 우울감에는 운동이 약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운동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코로나로 인해 운동을 중단했거나 ‘이제 운동해야 하는데 어찌지?’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운동화끈을 단단히 매고 밖으로 걸어 나가야 할 때다.



복현1동 관내에 쌓여있는 폐현수막



옥상텃밭 작물-곰보배추, 가지고추

폐현수막의 쓸모 있는 변신

도창중 기자

각종 행사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인 현수막. 탁월한 가성비비를 자랑하는 만큼 현수막은 가장 대중적인 홍보와 광고 수단으로 매년 수만 장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현수막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 주지만 쓸모를 다한 현수막의 처리는 또 다른 골칫거리로 남게 된다. 대부분의 현수막들은 오염되거나 세척 비용의 문제로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수막은 저렴한 합성섬유와 잉크를 사용해 빠르게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폐현수막은 땅에 묻어도 자연 분해까지 최소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다.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러한 폐현수막을 수거해 전문 재활용업체에 의뢰, 환경 정비 전용 마대로 제작하고 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마대는 현 옷 수거용, 연탄 수납용, 가을철 낙엽 수거용, 노인 일자리 참여자 청소용 등 지역의 환경 정화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자원 재활용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마대는 기존의 공공용 비닐 쓰레기봉투 보다 찢어질 염려가 없어 이용 면에서도 용이하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폐현수막을 청소용 마대로 재탄생시켜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가 무엇일까? 첫째,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오염 예방에 이바지한다. 둘째,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줄여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폐현수막 마대를 제작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 즉,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폐현수막 재활용’은 환경보호, 자원 절약, 취약 계층 경제적 지원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재활용(업사이클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폐현수막 원단을 써서 지갑, 열쇠고리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미니 인터뷰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 박건우 주무관

“폐현수막은 소각하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복현1동 관내에서 수거되는 폐현수막은 환경정비비용 전용 마대로 재탄생하게 되므로 깨끗한 우리 동네 거리 환경을 가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뿐만 아니라 벽보, 명함 등의 보상 금액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예산절감,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제로 자원의 재활용,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캠페인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복현1동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현1동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 현수막 일반형: 장당 1,000원 보상 (월 30만원 상한)
- 현수막 족자형: 장당 500원 (월 30만원 상한)
- 벽보(A3초과): 장당 50원 보상 (월 10만원 상한)
- 전단(A3이하): 장당 5원 보상 (월 10만원 상한)

옥상텃밭 가꾸기

이종철 기자

2012년 5월부터 아파트 옥상텃밭을 일구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심어 온 것이 있다면 바로 상추다. 가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면서 즐기는 채소류이며 키우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상추는 2월에 파종해두면 3월부터 5월 초까지 먹을 수 있다. 한 번 잎이 맺히면 앞다투어 자라기 때문에 이웃이나 가족과도 나누어 먹을 만하다. 5월쯤 옷자라게 그냥 두어 씨를 받아놓으면 다음 해에도 씨앗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때만 잘 맞추어 심으면 된다.

고추는 다양한 종류를 심는다. 5월 초순에 상추 심은 자리에 거름을 보태고, 그 위에 고추모종을 심으면 된다. 풋고추, 애기고추, 청양고추... 종류를 불문하고 잘 자란다. 고추는 열매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소금물에 삭힌 고추지는 입맛 없을 때 몇 점 곁들이면 반찬으로써 더없이 훌륭하다. 청양고추 일부는 빨갛게 익도록 두었다가, 따서 말려 고춧가루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올해는 가지고추가 좋다고 해서 모종을 어렵게 구해 두 포기 심어보았다. 6월초에 보라색 꽃이 맺히더니 병충해나 벌레 먹은 것 없이 고추 열매가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면 푸근한 마음으로 영양제 챙겨먹듯 세 개씩, 네 개씩 따서 매일 먹으면 된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지, 오이, 애호박 등은 땅에 심으면 뿌리가 멀리까지 뻗으며 자라는데, 화분에 심으면 한계가 있다. 큰 열매로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토마토도 마찬가지다. 방울토마토는 무난하게 크지만 말이다. 9층에 거주하는 나와 10층에 거주하는 이웃 한 명. 총 2명이 옥상텃밭을 가꾸고 있다. 텃밭을 돌보다가 10층 이웃과 옥상에서 차도 마시고 수도도 풀어내다 보면 한나절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나간다. 따뜻한 해가 드는 옥상텃밭에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야기한다. “분위기 좋은 어느 카페보다 옥상카페가 더 좋다!”

도시농부의 쉽고 효과적인 옥상텃밭 가꾸기

● 화분이나 스티로폼 박스 활용하기

땅이 없더라도 배수가 되는 구멍만 있으면 훌륭한 미니텃밭이 될 수 있다. 택배로 온 스티로폼 박스나 사용하지 않는 화분을 적극 활용하자.

● 모종심기

1. 화분이나 바닥에 서너 개의 구멍을 낸 스티로폼 박스 바닥에 양파망을 깔 다음 흙을 가득 채운다.
2. 모종이 들어갈 만큼 흙을 파낸다.
3. 모종을 넣고 흙을 덮은 다음 손으로 꼭꼭 눌러 준다.
4. 튼튼하게 심어졌는지 확인 후 물을 준다.
5.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대를 세워 묶어준다.
6. 가끔씩 화분에 거름을 넣어준다.

● 친환경 거름 만들기

음식찌꺼기(과일껍질, 계란껍질, 채소자투리)에 깻묵을 섞고 흙과 쪼개어 쌓아 보관해 두면 훌륭한 친환경 거름이 된다. 음식쓰레기의 양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재생에서 자생으로 가는 힘을 키워요”

복현1동 마을협동조합 설립의 첫발을 내딛다!

2021년 복현1동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년차를 맞아 마을협동조합 설립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과 시설들을 관리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고, 나아가 머물러 살고 싶은 복현1동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마을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 4기 복현 도시재생 마을대학 수료식

1단계 4기 복현 도시재생 마을대학 (4.20~6.8 9회 진행 / 주민 22명 수료)

마을협동조합의 사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분과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마을식당, 카페, 텃밭, 노인 돌봄 총 4개의 분과로 나뉘어 열심히 토론하고 마을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보았다. 장미향초, 꽃차 제조, 도자기 그림 등 추후 거점공간이 조성되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기능을 익히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마을대학에서 작성한 분과별 사업제안서를 바로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팀별로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기도 했다.



▲ 복현1동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간평가

2단계 2021 복현1동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6.24.~9.9. 2개월 / 3팀 선정, 주민 33명 참여)

마을대학에서 발굴되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팀은 총 3개이다. 『깨나라 이야기』는 참기름 제조 실습 및 시음 홍보, 『엄마밥집』은 마을식당 창업을 위한 시장조사와 건강 식단 개발, 『장미』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텃밭 및 화단 가꾸기 사업을 진행했다. 각 분과별 실습 내용을 추후 실질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간평가도 하고, 전문가에게 컨설팅도 받았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 정산, 보고 까지 수행하면서 실행력을 높였고, 각 사업 모델에 맞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요소를 점검해 보았다.

3단계 복현1동 마을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컨설팅(9~12. 3개월 / 주민21명 참여)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복현1동 마을협동조합 육성 팀을 결성하고, 마을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우선 진행하였다.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총 3회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올 12월에 ‘복현1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0월부터 설립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0월 6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컨설팅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직접 정관과 규약을 작성하고, 사업별 세부 계획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의하면서 협동조합 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복현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마을 사업의 수익모델을 만들고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자생적인 기반을 다져 나가게 될 것이다.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을 운영·관리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복현1동 마을협동조합 설립 추진 계획





청년 리빙랩, 복현1동에 마을정원을 만들다

이상민 연구원

복현1동 도시재생 '청년소셜리빙랩'은 청년과 주민이 함께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팀별 워크숍 및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3회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청년소셜리빙랩'은 '마을

정원 조성하기'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사업은 경북대학교 조경학과와 복현1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함께 협업하였다. 수강생들은 총 7주간 지역 주민들과 조를 구성해서 복현1동을 탐방 및 조사하여 마을정원을 기획하고, 최종 선정된 팀의 설계안으로 현장 시공을 하게 된다. 복현1동 주민들은 동네 어느 곳에 유희지의 활용이 필요한지 조언해 주고, 복현1동 곳곳의 상황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었다.

마을정원 설계를 위한 그룹 활동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다섯 차례 진행되었다. 11월 4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복현1동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여섯 조의 계획안 중 최종 시공안을 선정했다. 선정

된 2조는 복현동 606-3번지에 복현1동을 상징하는 장미와 기타 식재를 이용하여 화단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주제는 '복현담화(伏賢談話)'로 '복(福)이 꽃피는 화단에서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모두 함께 어우러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11월 4일 드디어 리빙랩 전체 참가자들과 주민들이 모두 모여 2조의 계획안 대로 시공하였다.

이 사업에 강의 조교로 참여한 조경학과 정신영 씨는 "기존 도시재생은 전문가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리빙랩은 학생과 주민들이 모두 공론장에 모여 토론했던, 보다 포괄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리빙랩을 통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현1동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복현담화 조성 사진



◀ 현재 마을과 미래 마을 모형

복현1동 주민협의체, 현장지원센터, 지역 청년 단체가 뜻을 모아 지역 주민과 청년들의 교류의 장을 넓혀가고자 두 차례의 외부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복현1동, 주민과 청년의 연결고리를 만들다

이아영 연구원

1. 복현 그림마당

'복현 그림마당'은 2021년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마을자치모델> 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복현1동 피란민촌과 그 안에 담긴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년 봉사자와 함께 그림으로 그려내는 과정을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복현1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청년단체 유니에즈의 주관하에, 6월 18일부터 7월 9일 성과공유회까지 총 4주간 진행되었다.

캔버스 위에 피란민촌의 풍경을 스케치하고, 그곳에 깃들여있는 추억의 이야기를 청년과 공유했다. 첫 만남은 다소 어색했지만, 전래동화를 들려주는 듯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세대 간에 연결 다리를 놓았다. 총 4주라는 짧은 시간에도 복현 그림마당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충분했다. 또한 피란민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과 주민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화합의 기회를 제공했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그림은 그림톡, 머그컵 등의 굿즈로 제작되었고, 성과공유회에서 다른 주민들에게도 선물로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도 복현동의 추억에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

이후 복현1동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 '복현유사'를 통해 그림톡과 달력, 스티커 등 새로운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수익은 마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공익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 기억하는 마을, 꿈꾸는 마을

지난 8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8주에 걸쳐 진행된 '기억하는 마을, 꿈꾸는 마을'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리빙랩 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력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단체 유니에즈와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했다. 기억하는 마을, 꿈꾸는 마을은 지역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현재와 미래 피란민촌의 모습을 종이, 조형물,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구상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청년과 주민은 한 조를 이루어 마을의 현안과 보완할 상황을 찾고 미래 마을에서 어울려 지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했다. 그 후 조별 의견을 발표하고 취합하여 미래 마을 조감도를 적절한 곳에 배치했다.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희망하는 시설을 선정한 뒤 3D 프린팅 작업으로 모형을 만들었다.

현재 마을과 미래 마을, 총 2가지 모형이 제작되었다. 현재 마을 모형은 지도를 참고해 실제 모습과 흡사하게 채색했고, 미래 마을 모형은 투표로 선정된 시설 모습을 본따 채색했다. 훗날 변화될 마을을 꿈꿔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상의 모습을 제작하여 가시화된 결과물로 만들어냈다. 청년과 주민이 함께 완성한 3D 모형은 복잡소건립 이후 전시될 예정이다.



북현1동을 기록하다

효를 다하고

북현1동 이순자 어르신 인터뷰

토박이가 되었다

김은정 · 신예숙 기자

“수성구 파동의 국민주택에서 친정어무이를 모시고 살다가 그 집은 아들을 주고 남편 치료차 서울에 가게 됐지. 친정 어무이가 내 윗 언니가 사는 북현1동에 올라왔는기라. 그런데 여기 산다고 방을 얻으려니 상노인이라 세를 줬다가 돌아가실까 싶어 아무도 세를 안주는 거라. 그래서 작은방 2칸과 담만 요래 있는 이 집을 사게 됐지. 나는 남편이 건강이 악화되어 죽고 나서 엄마 곁으로 온다고 마음먹었지. 아들이 저 위에 이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도 되었지만 94세 된 노모를 나 몰라라 할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아들한테 너저는 이제 독립했으니 나는 올 엄니 밥이라도 해주게 내려갈란다. 해서 내가 북현1동에 오게 되었지.”



올해로 85세. 이순자 어르신은 25년 전 못다 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 북현1동에 스며들었다. 1997년, 61세가 되던 해의 일이다. 처음 모시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큰 무리 없이 걸어다니시던 친정 어머니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모신 지 1년쯤 지난 후부터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2년 동안 병수발을 도맡아 했다. 지척에 언니가 살고 있었지만

언니 역시 칠순이 넘은 데다, 가정이 있었으므로 홀몸인 자신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다는 이순자 어르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여의 간병을 크게 힘든 줄 모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정 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거두셨기에, 노후에 자신이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순자 어르신은 친정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아파서 계속 누워 계셨지만 어무이가 정신은 말짱하신 거라. 모시다가 그래도 나도 아들도 보고 싶고 하잖아. 그래서 아들네가 있는 경기도 이천에 가 있으면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해서 성화였지”라며 그 때를 회상했다. “나는 아들네 가면 꼼짝도 못하냐! 엄마는 궁금하도 안항가 한번 가면 오지를 않네.”



지척에 언니가 살아도 꼭 이순자 할머니만 찾았다. 94세가 넘은 나이에도 한글이며 숫자를 무리없이 다 읽어내시던 어머니. 젊은 시절에는 글 모르는 동네 사람들에게 춘향전, 흥부전 다 읽어주시던 똑똑한 어머니. 어머니는 세월의 무게 앞에서 조금씩 스러져 갔다.

돌아가시던 날, 바깥으로 시선을 한참 두던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혼잣말을 했다. “검은 영감들이 늘상 밖에 있더니 오늘은 없노.” 그 말을 듣는데 웬지 느낌으로 2~3일 후 돌아가실 것 같았다. 다급히 언니를 불러 함께 목욕을 시켜 드렸다. 목욕이 끝난 후에 고스톱도 칠 정도로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 고스톱을 치고 낮잠 주무시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고 있노라니 숨결이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언니와 상의해 가장 좋은 한복으로 갈아입혀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잦아들던 숨이 조용히 멈추었다.

1997년에 들어와서 2년 후, 1999년에 상을 치렀다. 충북 괴산이 본적이었던 어머니는 호적이 늦어서 그렇지 사실 100세 넘게 장수하고 돌아가신 셈이었다. 그만하면 호상이었다. 먼저 간 남편이 죽기 전에 상조보험을 들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좁은 집이었지만 손님은 언니네 집에 받으면서 장례도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치를 수 있었다. 좁은 집이 북적북적했다. 동네 이웃들이 “할머니가 외로운 줄 알았더니 뒤가 걸대이” 하면서 조문을 와주었고 함께 슬퍼해 주었다. 이순자 어르신의 아들 둘과 딸 둘. 언니네의 아들 넷에 조카들까지. 일가친척들까지 친정어머니의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을 듯했다. 평소 어머니의 원대로 화장해서 뿌려드렸다.

“인생 살았달 것도 없더라. 화장하고 나니 뼈가 한 줌밖에 안되더라고. 아들, 손자랑 같이 차로 가창뎌 맨 꼭대기 위에 뿌렸어. 지금 같으면 허용안 되는 일일텐데 그때는 어머니 소원이어서 들어드렸지. 딸 둘이 살아계실 때 종신하고, 죽기 직전 목욕재계하고 가셨으니 후회는 없는기라.”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집을 떠나지 못했다. 이 집을 떠나면 친정어머니와 영영 이별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웃들과 정이 쌓여 차마 이사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 벌써 20년 세월이 넘었다.

“나도 팔십이 넘었지만 언니도 이제 구십이 넘었는기라. 이제 여기가 내 고향이지 뭐. 자매처럼 지내는 이웃들도 있고. 서로 너무 잘 알고.”

친정어머니를 보낸 눈물이 남아있는 곳, 이웃과의 정이 머무르는 곳. 북현1동은 피란민 주민들뿐 아니라 효를 다하면서 뿌리내린 이순자 어르신의 제2의 고향이었다.

피란민촌 기록하다! 기억하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라지게 될 피란민촌의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마을 기록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민들의 추억과 역사가 담겨있는 소중한 자료를 소장한 분은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연락 및 방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사진 및 기록물은 스캔 후 다시 돌려드립니다.

수집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12월

● 수집내용

1. 개인 및 가족사진(가족, 이웃 인물사진, 돌, 환갑, 생일, 집안 행사 사진 등)
2. 마을행사사진(소풍, 운동회, 졸업앨범, 마을잔치 등)
3. 피란민촌 경관 사진(골목길, 집, 화분, 대문 등)
4. 마을관련 기록물(관보, 반사회보, 회의록, 일지, 전단지, 안내문 등)

● 문의 및 접수처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53-939-3550